

2018 한국심리학회 특별심포지엄

2018 Special Symposium of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심리학, 과학수사와 만나다

Date
2018. 2. 8 / 목
13:00 — 17:30

Venue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주최
(사) 한국심리학회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공동주최
NFS 국립과학수사연구원
National Forensic Service



접수

사전등록 2018년 1월 8일(월) 10:00 - 1월 16일(화) 17:00

(선착순 200명 마감)

사전등록 한국심리학회 홈페이지 > 학술대회 > 특별심포지엄 > 사전등록 접수

방법 * 특별심포지엄 (https://www.koreanpsychology.or.kr/symposium/special_notice_list.asp)

사전등록	종신, 준, 정회원	비회원
비용	3만원	4만원

프로그램

13:00-13:10 인사말 한국심리학회장 김재휘
축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최영식

행동적 연계 분석을 통한 심리학의 범죄수사 기여방안

박지선 숙명여자대학교

13:10-13:40
행동적 연계 분석(Behavioral linkage analysis)은 일련의 범죄 현장에서 나타난 범행의 유사성 및 차이점 분석을 바탕으로, 해당 사건들이 동일범에 의한 범죄인지를 판별하는 데 기여하는 과학적 수사 기법이다. 범죄 현장에 나타난 범죄자의 행동 및 증거 분석을 통해 범죄자의 배경 특성을 추론하여 궁극적으로 범죄자 검거에 기여하는 범죄자 프로파일링의 확장인 기법이다. 연계 분석은 이미 검거된 범죄자가 저지른 범행과의 일관성 분석을 통해 미제 사건의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아직 잡지 않은 범죄자의 행동 분석을 통해 범죄 예방 및 범죄자 검거에 기여할 수 있다. 본 발표에서는 먼저 행동적 연계 분석의 전제가 되는 심리학의 이론적 배경에 대해 살펴보고, 그 동안 행동적 연계 분석 관련 선행 연구에서 사용된 다양한 방법론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 이를 통해, 앞으로 심리학이 행동적 연계 분석의 발전을 통해 궁극적으로 범죄 수사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심리학 연구와 과학수사에서의 활용

조은경 한림대학교

13:40-14:10
범죄 사건에서 물적 증거가 없을 때 목격자의 진술 혹은 용의자의 자백에 의존하여 사실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다. 과학수사에서 진술의 신빙성은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경우 용의자에 대한 유죄심증이 형성됨에 따라 더 강한 추궁형 신문을 사용하게 되고, 추궁형 신문은 허위 자백을 이끌어 낼 위험성이 제기된다. 피해자의 진술도 용의자의 유죄심증을 형성하는데 기여한다. 성폭력 피해의 물증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가해자에게 유죄가 선고되기도 한다. 최근에 우리나라 수사와 재판에서 진술 신빙성 판단의 중요성이 부각된 사건들이 종종 알려지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실무적 활용을 개관하고 과학수사의 발전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14:10-14:30 휴식 시간

목격자의 기억 고양 및 기억정확성 평가에 활용되는 심리학과 인지신경과학 - 범죄면 및 수평 도약 눈 운동

함근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4:30-15:10
범죄 수사와 관련하여 목격자의 기억 고양과 기억정확성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심리학 및 인지신경과학이 기여하는 분야 중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활용하고 있는 범죄면과 수평 도약 눈 운동 기법을 소개한다. 범죄 수사에 최면을 이용하는 것을 범죄면이라고 한다. 범죄면은 심리적 외상 등으로 인해 사건 관련 내용을 기억하는데 어려움을 가지는 목격자의 기억을 고양시키기 위한 기법이다. 범죄면을 활용한 기억 고양 기법 중에는 인지적 범죄면 기법이 있는데, 이 기법은 인지심리학적 원리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인지 면담과 범죄면의 장점을 결합한 것이다. 한편, 목격자의 기억을 고양시키기 위해 수평 도약 눈 운동을 활용하기도 한다. 수평 도약 눈 운동은 우리의 좌-우 대뇌의 연결을 활성화시키거나 주의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전두-두정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정확하고 많은 범죄 관련 정보의 인출을 도와주는 기법이다. 또한 최근에는 인지심리, 범죄면, 그리고 인지신경과학적 기법들의 장점을 결합한 목격자의 기억 고양 기법을 개발하여 수사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뇌파 및 근적외선분광기 등을 활용한 기억정확성 평가 기법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 중이다.

심리생리검사와 관련된 심리학적 이슈 및 활용 방안

홍헌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5:10-15:50
심리생리검사(PDD test: Psychophysiological Detection of Deception Test)란 소위 거짓말탐지검사라고 불리고 있는데, 대상자에게 사건과 관련된 질문 및 자극을 제시할때 유발되는 심리생리반응을 측정하고 이를 판독하여 진술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를 말한다. 심리생리검사가 국내에 도입된 이후 점차적으로 검사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적용되는 분야도 수사 분야에서 인원 채용 및 범죄 예방 분야까지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심리생리검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내외적으로 여러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본 발표에서는 심리생리검사의 반응 기제 및 검사의 측정 방법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 흐름을 짚어보고, 심리생리검사가 수사 분야 이외의 분야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고찰할 예정이다.

소아기호증과 아동성범죄 : 누가 소아기호증인가?

이장규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

15:50-16:30
일반대중의 통념과 달리,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모든 범죄자가 소아기호증(소아성애)을 가진 것이 아니며 소아기호를 가진 모든 사람이 아동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아니다. 소아성에 장애는 사춘기전(prepubescent) 아동에게 성적 관심과 성적 행동을 반복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일반대중의 인식은 미디어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소아성애자라는 단어는 일면식이 없는 아동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을 떠올리게 만들지만, 사실 '소아성애자'와 '아동 성범죄자'는 같은 의미의 용어가 아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동 성범죄자'와 '소아기호증'은 우리의 마음을 매우 불편하게 만들며,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은 주제라는 것이다. 본 발표에서는 소아성애자의 과학적 변별 및 심리학적 평가, 아동 성범죄자의 심리적 특성, 그리고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형사정신감정 현장에서의 주요 심리학적 쟁점들을 논의할 것이다.

16:30-16:40 휴식 시간

16:40-17:30 종합토론

김희송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노영희 변호사
최진영 서울대학교

참석 시 수련인정 내역

1분과	한국임상심리학회 임상심리전문가	학술활동 3시간 50분 인정
	정신건강임상심리사	학술활동 3시간 50분 인정
2분과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학술 및 사례심포지엄	참석 1회 인정
4분과	한국사회 및 성격심리학회 범죄심리사	학술대회 참석시간 3시간 인정
6분과	한국인지 및 생물심리학회 인지학습심리사	2시간 인정
8분과	한국건강심리학회 건강심리전문가	2시간 인정
14분과	한국코칭심리학회 코칭심리사 1, 2급	2시간 인정

오시는 길

주소
서울시 중구 명동 11길 19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 하차
5번 출구
4호선 명동역 하차
6,7번 출구

